

① 『돈 공부는 처음이라』를 읽고_강희란(사회복지경영학)

돈을 충분히 벌여놓은 사람이거나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사치였다. 물론 간혹 경제적 여유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소수가 되기엔 평범하다. 행복은 돈 인생의 대부분의 돈 우리는 다만 지나치게 평범했고 세상은 다만, 지나치게 돈과 엮어 있을 뿐이다. 만약 꿈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하거나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돈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면 종교에 귀의해서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면 당신이 희망하는 것의 대부분은 결국 돈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돈을 모른다는 것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삶을 모른다는 말과 같다. 자산 상황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돈을 아는 것이다. 저축만 하면 된다. 다른 것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일찍 취업하여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라(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라). 분산 투자하라(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라.) 돈의 시각에서 소득이란, 벌고 쓰고를 거친 후 당신에게 남은 자본의 전부를 뜻한다. 2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이 남으면 소득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이 남아도 소득은 100만 원이다. 우리는 이것을 잉여 자금이라고 부른다. 소득의 개념을 새롭게 잡고, 잉여 자금을 확보하여 돈을 마련한다. 그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수익 형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서 잉여 자금 100만원 씩 1년을 모으고 그 돈의 이자로 다시 잉여 자금으로 만든다. 1000만원의 적금도 1년 지나면 25만원의 이자가 붙고 그 1년 사이에 또 1000만원을 넣어서 50만원 이윤을 남긴다.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을 경우 적금을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25만원을 이익이 생기고 그것을 다시 적금 형식으로 입금한다. 25만원씩 1년 이면 300만원의 잉여 자금으로 다시 50만원짜리 적금을 넣는다. 3년 후 1000만원이라는 투자자금이 형성된다.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의 자본을 투입하는 일은 바로 시간과 정성이다. 투자하는 금액은 당신의 쓴 시간과 정성에 맞춰야 한다. 반드시 돈이 나의 노력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지 못하게 만들고, 많은 돈을 벌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할 것을.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무엇 해야 하지? 주식을 해라, 부동산을 해라, 창업을 해라. 돈은 이렇게 모은다. 제테크는 이런 방식으로 해라. 통장 쪼개기를 해서 금융을 통제해라. 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을 얘기할 것이다. 나누는 기준은 간단하다. 바로 돈이다. 훌륭한 투자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든 사람을 의미한다. 적금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적금의 가장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들은 답답한 투자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위험한 주식보다 안전하게 계획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10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주 큰 오해다. 사람들은 100만 원으로 큰 수익을 내고 싶기에 도전하기 어려워한다. 100만 원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며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사용할 100만 원은 당장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니 이 돈으로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다. 그럼 이 100만 원은 버리는 돈인가? 아니다. 당신이 만약 100만 원을 모두 잃는다면 그리고 그 과정을 열 번 반복하여 1000만 원의 돈을 모두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험은 인생에서 분명 이득일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당신은 반드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니까. 당신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끝으로 창업 시장이라면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요즘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옷으로 예를 들어보자.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동대문에서 옷을 주문한 뒤 주문한 매장에서 고객의 주소지까지 바로 배송할 수도 있다. 따로 매장을 차리지 않고 소액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도 많이 존재한다. 정부 지원금을 받을 기회도 많고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100만 원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 만약 설렁탕집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는 도시에 있는 설렁탕집을 모두 찾아가 보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찾아가보면 어떤 곳은 식당이 텅텅 비어 있고 어떤 곳은 가득 차 있고, 어떤 곳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잘되는 곳은 왜 잘되는지, 안 되는 곳은 왜 안되는지 분석하여 상세히 적어보라. 그리고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좋다. 겉으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개했다. 실제로는 여기에 소개된 것보다 열 배, 백 배 더 많은 방법이 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는 잠시 접어두고 100만 원으로 당장 시작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00만 원으로 경험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 1. 서점으로 달려간다. 2. 당신이 선택한 투자 수단과 관련된 책 세 권을 산다. 3. 그 책에 적혀 있는 방법을 그대로 실행해본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무작정 시작하라. 최소한 열 번의 투자 기회를 만들어 직접 행할 것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성향과 경험을 축적할 것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을 것 경제적 자유는 특정한 한 가지 방법을 알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간 당신이 들었던 시간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 자기 월급에서 50%를 저축을 시작한다. 예를 들자면 170만원에서 85만 원을 저축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생활비를 쓴다. 그다음에 1년 뒤 1000만 원을 만든다. 끝나고 계속해서 85만원씩 계속 1년을 적금을 들면서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다시 투자한다. 그러면 2년뒤 2000만 원으로 약간의 주식을 투자한다. 결과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모든 돈을 모으는 기본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나 복권을 선망하지만 저축해서 모은 돈은 잘 없어지지 않는다. 저축을 노력한 만큼 돈의 노하우가 쌓이고 5년 후 아마 여유로운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② 『돈 공부는 처음이라』를 읽고_김성준(상담심리학)

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봐야할 책!

먼저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학교 북카페에 근로 장학생으로 있으면서 ‘원북원’에서 들어온 책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평소 돈에 대해 관심이 많은 터라 유심히 읽게 된 책이 바로 ‘돈 공부는 처음이라’ 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어떤 태도로 돈과 투자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이론과 실전이 잘 버무려진 책이기도 하며 돈 공부를 시작하기에 좋은 책이다. 또 part 1~3까지는 저자의 돈에 관한 생각과 왜 우리가 돈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part 4에서는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는지 4단계 솔루션을 통해 설명한다. 솔루션은 잉여 자금에 따라 0원~1000만 원부터 5억 원 이상으로 나눠 각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돈의 개념을 이해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돈’을 향해 먼저 걸어난 한 청년의 생각을 들여다보며 돈에 관한 개념을 익히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다.

Part 1. ‘삶은 결국 돈의 한 조각이다.’ “그래서 행복=돈이 아니라고 말할 순 있지만, 돈이 없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민했던 시간이 꽤나 많았기에 행복의 대부분은 돈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는가?” “돈을 의식하지 않아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돈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돈을 알게 되면 돈에 현혹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SNS에 올린 명품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며 좋은차,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도 된다.”, “돈의 목적은 교환이 아니라 기회다. 내가 가진 돈의 크기는 물질로 교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한 물질이 가져올 가능성에 목적이 있다. 돈을 알게 되면, 돈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대상이 된다.” “자신의 자산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을 때 비로소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 100만 원을 모으기까지의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1억 원을 모을 수 없고 1억을 모은 후에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5억 원을 모을 수 없다.”

Part 2. 돈의 실체를 마주하다. ‘남의 돈에 자신의 삶을 버리지 마라’ “A가 가진 돈의 크기는 3000만 원도 되지 않았지만 다른 이가 그를 수십억 원을 가진 자산가로 봤던 것은 그가 수십억 원이 있다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한 가치가 그만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 비해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기에 불행하다. 앞서 말했듯이 돈을 과시하고, 돈이 전시되는 시대에서는 돈 크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30년간 저축해도 집 한 채 못가지는 현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4인 구성의 한 달 평균 가계 지출이 약 486만 원이라고 한다.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데 4인 가족 평균 지출이 486만 원이라면 외벌이로는 결혼과 출산은 포기하라는 얘기다.” “당신이 30평대 아파트를 언제 소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시기가 만족스러우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 지출을 한 뒤 남은 돈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미래가 그려지면 현재의 행복을 즐기며 살아도 된다.” **돈에 관해서는 우리는 여전**

히 원시인이다. “수확물을 얻기 위해 1년간은 밭을 갈고 관리해야 1년 후에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지금부터 노력해도 결과는 당장 나오지 않는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오랜 시간 공들이며 자신의 텃밭을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바로 텃밭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텃밭을 만들면서 쏟았던 노력과 경험에서 나온다.” Part 3.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 월급이 적다고 좌절하기는 아직 이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소득은, 어제까지 당신이 살았던 삶의 보상값이란 것이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높은 소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다. 다만 그 노력의 대상이 조금 더 과거일 뿐이다. 부모 혹은 부모의 부모가 포기한 시간이 있었기에 자녀가 덕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모두는 각자 동일선에 있던 순간이 있었다. 갈리기 시작한 시점이 다를 뿐이고, 그 순간에는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돈의 시각에서 ‘소득’이란 벌고 쓰고를 거친 후 당신에게 남은 자본의 전부를 뜻한다. 2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이 남으면 소득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이 남아도 소득은 100만 원이다. 우리는 이것은 잉여 자금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소득 만들기다. 새로운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도에는 늘 비용이 든다. 때문에 잉여 자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존 소득을 늘려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기존 소득을 늘려 잉여 자금을 모으고 자금을 형성한 후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 돈을 쌓아나가는 것 이것이 부자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길이다.” -돈은 교환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대상이다 “B가 주말 시간을 투자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기술을 습득하여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다. 투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B에게는 돈은 단순히 교환의 대상이 아니다. B에게 돈은 기회의 대상이다. B에게 돈은 동등한 가치의 재물을 교환하는 도구가 아니라 훗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한 기회의 가치로 활용된다. B처럼 돈을 기회의 대상으로 보는 행위, 그것이 새로운 소득을 만드는 결정적 관점이다.” -파이프라인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다. “반면 B는 당장의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소득을 얻는 형태를 변화하려고 고민했다. 단순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아닌 시스템 구축으로 얻는 소득을 택한 것이다. 즉, B는 생산수단을 고민했다. -투자라 주장하고 도박처럼 행동한다. ”여기에는 투자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빠져 있다. 바로 시간과 정성이다. 투자와 도박은 내가 투여하는 자기에 어울리는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지, 쏟지 않았는지로 나뉜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B는 수개월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파이프라인의 종류에 대해 고민했을 수도 있고 수압과 파이프라인의 상관관계, 혹은 지지대의 종류를 공부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쏟은 노력보다 높은 수익이 나온다면 당신은 반드시 돈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가난이 따라온다.” Part 4. 당신이 어디에 있더라도, 지금부터 이렇게만 -시간과 정성, 방향을 제시하다 “훌륭한 투자자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한두 시간 책을 읽는다고 하여, 하루 이를 공부한다고 하여, 한두 명의 명사가 하는 특강을 듣는다고 완성될 리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책이나 사람도 시간과 정성을 대신할 순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투자자를 만나고, 배우고, 가르치며 성공한 투자자가 되려면 5억 원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온전히 5억 원을 자기만의 투자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50억 원을 만든 사람과 크게 수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금액에 따라 해야 하는 행동은 각기 달랐고, 그 단계에 필요한 행동과 지식을 온전히 가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경험했다” # 1단계 전개 구간: 모으고, 배우고, 느껴라(잉여자금 0원~1000만 원) -적금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적금을 하면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말자. 적금은 훌륭한 금융 상품이다. 적금을 하는 동안 투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100만 원을 우습게 보지 말자. 100만 원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1000만 원,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 2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1억 원으로 2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10억 원으로 2억 원의 수익을 낸다.”, “겉으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신의 병사를 모으며 돈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돈을 상상하며 돈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된다면 당신은 비로소 1단계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인생을 바꾸는데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도전해볼 만하지 않은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 어떤 투자 명언도, 그 어떤 훌륭한 투자책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을 투자자로 만들지는 못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돈 공부도 역시 생각과 행동을 수반해서 얻게 된다 라는걸 새삼스럽게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만약 돈이 없다고 해서 ‘난 돈을 모으지 못해!’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일종의 핑계 거리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투자를 잘 해서 큰 돈을 벌기엔 그만큼 노력과 운이 따라야만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돈에 대해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추고자 노력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 한다. 일단 첫 스타트 라인은 끊어 났으니 돈 공부에 대한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한번쯤 도전해 볼만한 책인건 분명하다. 이로써 나는 돈에 대한 큰 꿈으로 향할 용기가 생겼다. 끝으로 그동안 나처럼 돈 때문에 고민이 있던 사람이 있다면 꼭 읽어 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③ 『아이의 때 거부 고집을 다루다』를 읽고_윤신혜(가족청소년상담학)

(아이의 훈육은 늘 어렵다)

저는 첫 아이를 키울 때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시집을 온데다가 독박육아에 주위에 도움을 얻을 사람이 없다보니 말 그대로 책이나 인터넷으로 육아를 배워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이들이 신생아일땐 씻기고 재우고 먹이는거 이런 거는 뭐 거의 책으로 육아를 배우기가 나름 쉬웠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주장이 세지고 표현력이 세지자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이가 넷이되면서 8,6,4,2살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성격도 제각각 기질도 제각각...

집에 있으면 정말 1분에 한번 씩은 싸우는 듯 했습니다

훈육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말을 들을지..
 화도 내봤다가 타일러도 봤다가 협상도 해봤다가..
 정말 누가보면 다중인격자라고도 생각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훈육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싶어도 막내가
 아직 어려서 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과단톡에서 원복원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걸 보게 되었는데 육
 아에 관한 서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제일 고민중이었던 아이들의 훈육편!!!!
 제목부터 완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혹여나 어려운 내용이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지도 않을까 했는데 글반 그림반의 쉽게
 풀어져있는 육아 서적이어서 거부감없이 읽고 싶어지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들도 쉽게 해석이 되어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심리학자
 들의 이론과 심리학자들에 관해서도 접목해서 풀어놔서 전공인 상담학과 내용도 조금
 복습하는 듯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훈육의 잘못된 케이스와 훈육을 하기전에 뭐가 제일 중요한 대장문제인지부
 터 차근차근 설명이 잘되어있었습니다
 잘못된 케이스의 모든 예가 마치 제 얘기를 그려놓은 듯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먼저 바로 잡아야 할 문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징징거리고 짜증낸다고 화를 냈던 것도 다 일관성 없는 나의 잘못된 훈
 육방법들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이 방법 저방법 써보고 결국엔 안되서 화내
 고...
 항상 아이들에 행동에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받아쳤기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었
 습니다
 내가 당장 힘드니까 조금은 받아줘야지 했던 것들도 다 아이의 버릇을 망쳐버렸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감정에 뇌가 우세한 달린 아이들인데도 엉뚱하게 훈육을 하고 있었습니
 다
 아이들의 성향마다 각각의 훈육법이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아이들에게 맞춤 훈육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중간 중간 도서관에 갔을 때 문이 닫혀있어서 두 번이나 헛걸
 음 한적이 있었스니다
 그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점점 도서관에도 책이 많이 채워지는 것 같아 자주 이용해야겠
 습니다

4 『직장인공부법』를 읽고_임해송(사회복지학)

학교 도서관에서 독서감상문 공모전 책리스트를 보자마자 이책으로 정했다. 일을하면서 사이버대학을 다닌지 이제 한학기가 지났지만 생각보다 두 개를 병행하기가 쉽지않았다.

시험공부는 둘째치고 강의를 제시간에 듣는것조차 벅찼다.

이책에서는 대학졸업을 앞두고 1년만에 행정고시를 합격한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10개 이상의 자격증을 합격한 이형재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효율적으로 공부할수 있는 팁을 말해준다.

내가

첫장의 소제목은 ‘다시 공부라는 것을 시작해보자’이다.

먼저 공부시작전에 예열의 3단계를 소개해준다.

1단계는 ‘먼저 지금의 나를 알아야 한다’이다.

나의 미래란 결국 현재의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는 공부할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직장인에게 퇴근후나 주말 또는 휴일에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다. 어쩔수 없이 한두달 공부하다 이내 포기하고, 새해가 되면 다시 공부하리라 결심한다.

이런방식으로는 돈과 시간만 날릴 뿐이다. 노력을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임계치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동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욕만 넘쳐서는 목표를 달성할수 없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알아야한다. 첫장에서는 예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도와준다.

첫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직장인이 공부에 실패하는 4가지이유를 알려준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만 하지않으면 쉽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우선순위 설정에 실패한다’이다. 직장인이 공부를 하는 기간에는 우선순위가 낮은 활동을 과감히 포기해야한다. 예를들어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면 직장동료나 집안의 경조사도 챙길범위를 정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오르지 못할 나무에 도전한다’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합격할수 있는 시험을 준비해야한다. 공부해야 할것이 너무 많은 시험을 준비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하기 힘들다.직장인이 고시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에 빠진다’이다. 직장인은 시험 공부를 위해 모든내용을 이해하며 공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점을 위한 노력보다는 모든과목의 합격선까지 공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유는 ‘공부의지를 상실한다’ 내경험에서는 이이유가 가장 많았다.다른 할 일들이 자꾸 생기고 의지가 약해질땐 처음부터 다시 목표를 재검토해서 의욕도 되찾고 전략도 다시 짜야한다.

두 번째 장의 소제목은 ‘직장인의 공부, 주말에서 시작된다.’이다

주말에 공부하면 효율적인 이유는 첫째,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를 할수 있다. 주중에는 자투리 시간만 있을뿐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평일에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한다고 해도 퇴근후 피곤한 상태에서는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내용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난이도가 높거나 이해를 요구하는 공부는 주말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다. 평일 공부와 주말공부의 특징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우선 평일과 주말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확보할수 있는 시간의 양에 큰 차이를 보인다. 평일엔 최대 3시간을 확보한다면, 주말엔 6시간 이상을 확보할수 있다.또 평일에는 야근이나 회식등 갑작스럽게 공부를 방해하는 일이 생길 확률 높다. 결국 시험공부처럼 단기간 집중력을 요하거나, 공부량이 많은 계획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킬수 있는 기회는 주말에 있다.

둘째, 주말에만 공부해도 성과를 볼수 있다.

셋째 공부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릴수 있다. 업무에 지친 직장인이 평일에 깊이있는 내용을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은 주말을 잘 활용해야 한다, 또한 2장에서는 주말에 시간을 관리하는법,시간대별로 공부하는법,공부시간을 만드는법등을 알려준다.

2장의 마지막에서는 장소에 따라 어떤공부를 하면 효율적인지 알려준다.

카페는 비교적 분위가 자유롭고 음료를 마시며 공부할수 있어 가볍게 공부하기 좋다. 대부분 동네에서는 카페가있어 접근성이 좋고 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그래서 문서 작업을 하거나 잠깐동안 공부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오랫동안 공부하기는 불편하다. 가급적이면 2~3시간 이내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도서관 열람실은 대부분 무료고 조용해서 오랫동안 공부하기 좋다. 다만 접근처에 도서관이 없다면 오고가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오래된 도서관은 시설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집에서 공부할때의 가장큰 장점을 피로를 회복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다는 점이다. 마사지 기계를 켜둔상태로 온라인 강의를 들을수 있고, 편한자세로 소리를 내며 공부할수도 있다. 하지만 집에서는 tv,게임등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서 작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독서실은 쾌적하고 조용해서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공부할수 있다. 독서실은 일반적으로 정기휴일도 없고 개방시간이 길어 활용도가 높다. 금액의 부담이 없다면 작가가 가장 추천하는 공부장소이다.

회사에서 공부할수도 있다. 회사만큼 프린터기,음료수등 공부에 필요한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곳도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부한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장의 소제목은 ‘가장 현실적인 직장인 공부법’이다. 이장에서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많은 양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행동원칙>

- 1.평소에 읽는 양의 1.2배를 목표로 설정하라.
- 2.시간제한을 정해 그 시간까지 다 읽지 못했다면 일단 그페이지는 넘겨라.
- 3.누군가에게 설명하듯 단락별로 요약하라.
- 4.요약이 잘되지 않으면 그 부분만 다시 자세하게 읽어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 1.무조건 베껴 쓴다.
- 2.문장 전체를 외운다.
- 3.한번 외우면 다시는 보지 않는다.
- 4.이해없이 암기한다.
- 5.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공부시간을 단축시키는 독서 기술>

- 1.뼈대를 추려내며 읽어라
- 2.강의를 활용해 읽어라
- 3.리듬을 타며 읽어라.

이외에도 3장에서는 다양한 공부법들과 공부습관에대한 팁이 적혀 있다.

네 번째 장의 소제목은 ‘적게 공부하고 빨리 합격하는 시험 준비의 모든 것’이다.

4장에서는 어떤 자격증을 선택하고 공부할지에 대한 팁들이 적혀있다.

자격증을 선택하기 위한 팁들은] 첫 번째 ‘개수는 중요치 않다’이다. 자격증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쉬운 자격증 여러개를 합격하는것보다 그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험한 개를 합격하는 것이 자신의 실력을 알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향후 전망을 살펴라’이다. 앞으로 자격증을 얼마나 잘 써먹을수 있을지, 그시험의 난도가 향후 높아질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격증의 향후 전망은 경제상황, 응시자 수의 변화와 같은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기 어려운 조합으로 구성하라’이다.

희소가치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둘 다 갖추기는 어려운 분야로 경력과 자격증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는 ‘합격할수 있는 시험을 준비하라’이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현실적인 고려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두어야 한다.

다섯째 장의 소제목은 '공부하는 직장인을 위한 마인드셋'이다.

다섯째장에서는 말그대로 공부하는 직장인의 마인드에 대한 얘기가 적혀있다.

이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쓸데 없는 조언에 흔들리지 않는법'에 대해 적혀있는데 그내용을 요약하자면 필요한 조언은 받아들이고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공부를 하기로 확실히 결심했으면 주변의 얘기로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갖고 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이버대학에 다시 입학해서 사회복지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쓸데 없는 충고, 조언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직 졸업을 한건아니지만 매우 만족하며 공부하고 있고 미래에대한 확신과 자신이 조금 더 생각하고 있다.

이책은 단순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자극과 확신을 주기도 하고 또다른 동기를 부여해주는 평생 읽을수 있는 책이다.

㉔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를 읽고_조성용(상담심리학)

우리는 이 세계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아형성에 중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부여받게 된다. 일평생 사용하게 될 이름과 외모, 가정환경, 그리고 육체에 흐르는 시간을 가늠하고 앞으로의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기준이 될 나이까지. 대부분의 조건들이 내 선택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 어디에도 나의 자율이 끼어들 틈새를 주지 않는다. 후에 인간의 주체성과 선택의 개념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미 나는 태어나버렸으며 많은 것들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함을 인식하게 된다. '나 비효과'라는 영화에선 엄마의 자궁으로 돌아가 나의 삶을 없던 일로 선택하는 과정이 나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상상력의 영역일 뿐, 구체적 삶의 영역과는 무관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한 건지, 어떤 과업을 성취하면 진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와 같은 실존적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서 외부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들을 기반삼아 아등바등 이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 누군가는 그 조건들이 맘에 들어 뿌듯해하며 살아갈 것이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피부가 벌게 질 때까지 손으로 문질러대는 지우고픈 낙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가 설정해놓은 옳고 그름, 좋음과 나쁨이라는 가치적 요소들이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내 조건들에 탄지를 걸며 우월과 열등을 가늠하고 규정해버린다. 참으로 억울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억울함과 슬픔, 좋음과 나쁨,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각 등, 자아와 세상에 대한 이 모든 인식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혹시나 그 실체와 인과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삶에 관한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진 않을까?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절에는 가슴과 머리가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고 행동으로 출력한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신경의학적 지식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그것의 발현과 신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연결 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보금자리를 임의

로 유추해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의학지식으로 인해 유기체가 담지하고 있는 모든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의 물리적 집결체가 바로 '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책은 이런 '나'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는 존재의 정체성과 그 구성성분들의 보금자리인 뇌에 관해 심도 있게 서술한 책이다. 작가는 '질 볼트 테일러'라고 하는 하버드의대 연구원 출신의 뇌과학자이면서 동시에 뇌졸중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했던 뇌질환 경험자이기도 한, 정말 복잡다단한 삶의 투쟁가이다. 그녀의 삶은 어릴 적 자신보다 18개월 먼저 태어난 친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사실 그녀가 뇌과학자가 된 이유도 오빠가 가진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하나뿐인 형제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다는 이타성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지각이 일반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뇌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는 환각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경험하게 되는 그녀의 체험이, 신경의학적으로의 '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도울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에게 함양된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나 이해심은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큰 그릇으로 구조되지 않았을까싶다.

유년시절 환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뇌에 관심이 많아진 그녀는 뇌과학자로서, 그리고 NAMI라고 하는 전미정신질환자협회의 임원으로 지역사회와 자신의 삶에 모두 최선을 다해 이바지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었다. 그렇게 사회적, 개인적으로 승승장구하던 1996년 12월 10일 어느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눈 뜬 여느 때와 같은 그 날 아침에, 그녀는 뇌졸중에 걸려버렸다. 평소에 편두통을 앓았기에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은 통증으로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점점 고통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뭔가 잘못 된 걸 알았고 이내 뇌졸중이라는 걸 캐치한 그녀는 뇌의 인식기능이 혼미해지는 그 급박한 상황을 관찰자로서 지켜보게 된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서술된 문장력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과학자가 아니라 시인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비유와 표현이 유려했다. 그녀가 37년 동안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느끼고 있던 신체감각들이, 마치 또 다른 우주 속의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겪게 되는 지각체계인 것처럼 그 과정을 매우 섬세하게 그려내 주어서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가 버렸다.

그녀의 뇌에 출혈이 일어난 부위는 크게 구분하면 좌뇌, 좀 더 정확히 구분하면 좌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영역과 베르니케영역을 포함하고 전두엽과 측두엽, 후두엽을 걸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모두 알다시피 신체의 오른쪽을 지배하고 있는 좌뇌와 왼쪽을 지배하고 있는 우뇌로 구분 되어있다. 좌뇌는 인간의 고유기능인 언어와 분석적능력, 추리력, 사고력등 흔히 '이성'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분석적이고 비판적 능력이 강하며 현실성이 높은 사람들을 좌뇌형 인간이라고 부르곤 한다.(물론 좌뇌형, 우뇌형인간에 대한 논란은 있음) 반대로 우뇌는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이 연속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현재만을 있는 그대로 영사하며 현실에 대한 직관과 느낌, 감수성, 창의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영

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두 개의 고유기능을 탑재한 물질들이 뇌량이라는 매개를 통해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현실을 왜곡없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테일러 박사는 이 분석적 능력을 담당하는 좌뇌에 출혈이 생김으로써 언어적 능력과 기억, 공감각, 자아개념 등을 상실하게 된다. 뇌과학자로서 좌뇌의 영향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온 그녀에겐 치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개두수술(두개골 절개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서서히 좌뇌의 기능을 되찾기 시작한 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었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녀가 이 뇌졸중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을 독자들에게, 넘어서서 우리 인류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책을 읽는 내내 느껴졌다. 그녀는 좌뇌의 기능을 잃었던 그 순간을 '우주와 합일된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내 몸의 어디서부터가 시작이고 어디까지가 끝이며 과거와 미래같은 시간개념 자체를 의식하는 것조차 인지할 수 없어진, 존재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에서 오로지 '현재'만을 인식할 수 있게 된 황홀한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언뜻 듣기엔 앞뒤가 안 맞는 모순 같은 얘기지만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역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구조 중 어느 한 영역의 손실이 일어나면 그 영역에 뻗어있던 신경 뉴런들이 남아 있는 다른 영역으로 가지를 뻗게 됨으로써 잔존해 있는 기능들을 더욱 강화 시킨다는 것이다. 그녀의 상황에 빗대서 재구성 해보자면, 좌뇌의 기능들이 대거 작동불능된 결과로 오직 현재만을 인식하는 우뇌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다른 감정, 세계관,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신경해부학적 관점에서 검증하기 위해 단일광자방출단층검사(SPECT)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이 영적경험을 할 때 뇌의 어느부위가 관여하는지 확인 해보았다. 티베트의 수도승과 프란체스코 수도회 수녀들을 불러 SPECT 기계 안에 들어가 명상과 기도를 주문하고 우주 혹은 신과의 합일을 느끼는 순간 출을 잡아당기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 명상과 기도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좌뇌의 언어담당 영역의 활동이 둔화되었고 공간감을 지각하게 해주는 정위연합 영역의 활동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항상 활성화시켜 놓는 좌뇌의 지각출입구를 막는 순간, 우리의 우뇌가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 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우주와의 합일'이라고 표현한 일련의 활동 그 자체가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다. 우뇌가 만들어내는 이 절정감은 속세가 나에게 부여한 많은 부정적 감정들을 다스리게 해주고 자기 자신을 이 세계의 관점이 아닌 전혀 다른 개체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한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좌절과 고통, 불쾌함이라는 음성적 감각에 압도되지 않고 현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피난처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계와 유리된 상태, 우주와 합일된 상태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그냥 이대로 머물고 싶게 하는 유혹 또한 내재하고 있다. 그녀는 8년 동안 좌뇌의 회복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유혹과 싸워야하는 지난한 과정 또한 포함 돼 있었다고 고백한다. 좌뇌의 기능들이 하나 둘 돌아올수록 뇌출혈이 있기 전의 자신의 자아가 점점 되살아나면서 현실 속에 깊게 개입하려하고, 그로 인해

부정적 감정들과 지속적으로 조우할 가능성과 빈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그녀가 좌뇌 회복의 재활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비록 이 안락함과 충만함의 기운이 예전만 못하게 되는 건 자명하겠지만 서도, 자신의 경험과 좌뇌를 통해 얻게되는 뇌과학적 지식들이 현재에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뇌관련질환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런 이타성과 확고한 목표의식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 고된 과정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 본인도 장담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과 깨달음을 통해 테일러 박사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 명상을 하라? 기도를 하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활동들은 진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느껴졌다. 그 수단을 통해 우리가 자각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이란 것은 결국 조율과 균형을 갖춘 삶의 영위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 제한된 삶을 의미있게 살고자 한다면 현실에만 매몰되어선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현실을 초월한 이상의 세계에만 몰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 비록 고통과 괴로움이 산재해 있는 우리 내 삶이지만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만 명확하다면, 물질로 이루어진 '나'와 영혼으로 느낄 수 있는 '나'에 대해 좀 더 높은 이해점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 같다. 좌뇌와 우뇌의 협동관계를 통해 이런 현상들을 물리학적으로 친절히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도 그런 의도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런 그녀의 인류에 대한 이타심과 따뜻한 배려가 책의 처음과 끝을 시종일관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두 번째 읽었을 때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테일러 박사와 비슷한 본질을 피력하고자 했던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해보고 싶다. 20세기 독일의 존재론 철학자 하이데거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미래에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공간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한다고 한다. 그 의미를 찾으려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불안'이다. 우리가 동물들처럼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서 굳이 삶의 의미를 찾지 않더라도 언젠가 될지 모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하이데거가 우리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오게 된다면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이 모르는 반세기 동안 인류의 과학 문명이 영생을 구가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찾은 건 영생이 아니라, 유한한 삶이라는 실존을 망각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대증요법임을 실토해야 할 것이다.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그 불안만을 달래기 위해 술에 취하고, 타인의 욕망을 취하고, 중독에게로 도망치는 현대인들의 삶이, 애석하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산업은 불안을 달래줄 컨

텐츠만을 양산할 뿐이지 소비자들이 돈도 안 되는 삶의 의미 따위를 찾길 바라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사회에선 그 현상이 심화된 상태로 보인다. 정체성을 한창 형성해 나갈 나이에 입시에만 매달리다 보니 삶의 의미와 목표라는 주관식 답을 스스로 작성하기가 어색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겐 언제나 1번부터 5번 중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이 책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의 건조하고 말라비틀어진 삶을 촉촉히 적셔줄 단비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또한 이 책에서 건져낸 수많은 명제들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혹여나 찾아올 삶의 방향과 위기를 겸허히 맞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랜만에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탐색하게 해준 테일러박사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부산디지털대학교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글을 끝맺고자 한다.